

ARTIST ESSAY

늘 낮은 자세로

/ 문성식

화가 문성식에게는 '최연소 비엔날레 작가'라는 수식이 따라붙는다. 2005년 학생 매지가 채 떨어지기도 전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참여했다. 2008년 본지 특집 <신한국미술 POWER 100>에 선정될 때도 아직 20대였다. 이후 단단한 기량과 차분한 작가적 행보로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제 막 40줄에 접어든 그가 4년 만에 개인전을 열고 있다. <아름다운 기묘함, 더러움>(2019. 11. 28-1. 19 국제갤러리 서울). 그동안 비근한 일상의 체험을 섬세한 풍경화와 서정시 같은 연필 드로잉으로 그려 냈던 문성식은 이번 전시에서 '전통의 현대화'라는 과제를 안고 더욱 농익은 조형 세계를 펼쳐 보였다. 동양화의 구도나 벽화의 질감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꿀벌, 담길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작품 내용으로 구현해 냈다. 전시에 걸리며 문성식의 최근작과 작업 노트, 에세이를 함께 실는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작가의 사유의 궤적 속에서 '예술, 삶, 사람'을 들여다본다. /

꽃—아름다운 그 무엇

예전부터 우리 집엔 꽃이 많았다. 이름을 모르는 각종 난과 선인장, 큰 등나무를 비롯해 목련과 배나무 달리아 봉숭아 셀비어 작약 등은 갖 빛깔의 꽃들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 마당을 수놓았다. 이는 아버지의 알 수 없는 동식물 사랑 때문이었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것이다. 빈 밭에 어떤 작물도 없이, 아버지께서 어디 내다 팔 수도 없는 붉은 물립을 마치 마늘밭처럼 심어 놓았던 적이 있다. 봄이 되자 물립은 꼬물꼬물 나와 밭을 조금씩 붉게 물들였다. 집에서 그 밭을 내다보면 흙빛 포도밭 사이에 붉은 꽃이 피어 있는 우리 밭이 난데없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네덜란드의 들안치림 완결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만은 주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국의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아마도 그 시절 동네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혈담을 뿜을 것 같다. 돈도 되지 않는 꽃을 밭 한가득 심어 둔 농부를 두고 그들은 뭐라 생각했을까?

그 시절의 어느 아침, 엄마는 등꽃길에 아직 피지 않은 물립 한 다발을 밭에서 꺾어와 신문지에 둘둘 말아 주머니에 넣어 학교에 가지고 가라 하셨다. 꽃이 밭에서 그냥 시드는 것이 아깝다 하시며, 나는

남자가 꽃을 드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다소 부끄러워하며 교실에 들어갔다. 선생님께 내릴까 엄마가 갖다 드리라 했다는 말을 배먹지 않았다. 내 의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였다. 선생님은 아주 좋아하셨고 유리병에 꽃아 교실 창가에 놓아두셨다.

여느 날처럼 수업을 했고, 봄별이 좋은 교실 안에 아침에 가져온 등우리만 있던 붉은 물립은 한 교시 한 교시 마칠 때마다 그 모습이 변해 있었다. 1교시에 다소 엄성하던 꽃은 점심시간에는 병 위의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만개하여 붉은 꽃잎이 별뿔뿔 뿜어져 나왔다. 아무튼 나는 아버지의 별취미 덕에 그날을 내 뇌리 한 편에 아름답게 기억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밭에 물립을 심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짐작컨대 인간이 처음으로 꽃을 집에서 가꿔야겠다고 생각한 수천 년 전, 그 사람의 마음과 비슷한 맘으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늘 낮은 자세로

January, 2020 문성식



문성식 / 1989년 서울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졸업
2005년 제12회청담회 한국현대 미술 최우수 작가로 선정
받았다. 국제갤러리, 이노원, 서울미술, 차의움(2018),
(동행의 표상)(2011), 무궁화여의 (당구촌 제1)(2006),
K1919K (계정없는 통영)(2006) 등 개인전을 개최했다. 4회
대구미술관(2007), 하이프빌딩(2013), 국립 서울미술관,
프라하비엔날레(2009) 등의 국제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하이프빌딩에 모여져놓은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

그림 상: 캔버스에 혼합재료 140×300cm 2018-19
이전 제작지 - 그림 상: 캔버스에 혼합재료 300×170cm 2019

꽃—구체적 내부

최근에 광화문 빌딩 숲 사이 트럭에서 파는 자주색 호접란 화분을 만원 주고 사 와서 식탁 위에 두었다. 속을 밀어내며 만든 그 모습이 이토록 섬세하고 구체적이다. 이 모든 게 저 몸의 중심 아래에 있을 어둠 속 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하니 갑자기 나는 꽃 앞에서 서툰 철학자가 된다.

이 모든 게 거짓말 같다. 연약하지만 팽팽하게 몸 끝까지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잠 꾸민 여자 같아 더 눈이 간다. 여섯 장의 꽃잎은 쪽 뽕을 데는 뽕고, 움크릴 데는 움크리고, 종긋할 데는 종긋하여, 되어진 그 모습이 방 안 형광등을 향해 사랑을 바라고 있다.

성실한 성정이 만들어낸 물의 조각, 그 낮은 모습이 주방 안에서 그 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그 차지한 만큼 그의 생이리라. 초만간 이 아름다운 조각들도 먼저 진 꽃처럼, 차지한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지겠지. 이렇듯 꽃의 호흡 또한 우리 삶의 궤적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내 손을 보니, 내 손도 그것처럼 거짓말 같다.

연필

모든 재료는 저마다 아름다운 구석이 있고 저마다 고유한 맛이 있다. 유화의 끈적이며 짙은 듯한 중량감과 밀도감, 겹치기를 주로 하는 아크릴릭의 뱃뱃한 느낌, 물 속에서 흘러내리는 피그먼트(pigment, 물감가루)의 부드러운 회화성이 매력적인 파수, 상쾌한 수채화, 순진하고 담백한 색연필, 묵탄의 원초적이고 풍부한 느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연필의 매력은 의식의 명령을 손이라는 매개를 거쳐 왜곡 없이 보여 준다는 점이 아닐까? 연필은 장식적이지 않으며 배태만 남아 있는 의식을 드러내기에 적당한 재료라는 생각이다. 연필은 우연율 거의 만들지 않는다. 마음이 시키고 손이 수행하는 과정에 과잉이 없고, 항상 정도(正度)를 유지한다.

안착이 잘 되지 않는 면 천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꽤나 피곤한 일이다. 그럼에도 연필 가루를 천 위에 안착시켜 형태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는 연필을 자꾸만 고쳐 쥐게 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통증을 통해 화면은 꼬질꼬질하고 순진한 회화성을 갖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연필의 매력은 그 꼬질꼬질함과 비박거림이 그대로 노출된, 그리는 자의 정신을 비교적 오염 없이 반영한 선들이다.

'어떻게'의 어려움

인간의 긴 역사 속 그리기에서 어떤 그리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작가의 몫이지만, 거기에 마땅함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냥 좋아서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변명보다 더 강도 높은 체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그리기든지 그리는 이유의 마땅함과 방법적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이가 그림 안에 몰입하게 된다.

미술 기초 교육에 사생 훈련이 포함된 우리의 환경에서 그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상을 성실히 묘사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 가치를 위한 훈련만 받아 오다가 막상 대학에서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대부분의 미대생들이 겪었을 것이다.

우리 그리기의 역사적 맥락과 서구 미술을 토대로 형성된 현대미술의 즐거가 만나는 어디쯤, 우리가 놓여 있다. 그곳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고 얼마만큼을 내 속에서 꺼낼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어디 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릴지를 정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작별> 송이예 연필 22.7x37cm
오른쪽 페이지 - <꽃과 아이> 송이예 연필 53x38cm 2002

